

《조선은 강위력한 나라, 승리의 상징》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커다란 반향

누구도 감히 조선을 넘보지 못한다는것을 시위한 열병식

은 세계가 대륙행진열병의 확산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성대한 경축열병식이 진행되는 경이적인 현상이 펼쳐져 행성을 들끓게 하였다.

중국중앙TV방송, 로씨야신문 《폼소플스카야 브라우다》, 몽골의 몬짜메통신, 인디아-아시아통신, 수리아중앙TV방송, 알제리신문 《알 히와르》, 민주공화국신문 《라브리르》, 세네갈 인터넷신문 《앵박트》, 브라질신문 《빠뜨리아 라피나》, 베네수엘라의 인터넷홈페이지 《씨마라마가지네》를 비롯한 각국의 언론들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사진물원들을 정중히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특대소식으로 일제히 보도하였다.

은 세계가 대륙행진열병의 확산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성대한 경축열병식이 진행되는 경이적인 현상이 펼쳐져 행성을 들끓게 하였다.

중국중앙TV방송, 로씨야신문 《폼소플스카야 브라우다》, 몽골의 몬짜메통신, 인디아-아시아통신, 수리아중앙TV방송, 알제리신문 《알 히와르》, 민주공화국신문 《라브리르》, 세네갈 인터넷신문 《앵박트》, 브라질신문 《빠뜨리아 라피나》, 베네수엘라의 인터넷홈페이지 《씨마라마가지네》를 비롯한 각국의 언론들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사진물원들을 정중히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특대소식으로 일제히 보도하였다.

발하시였다. 열병식에서는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이 공개되였다. 김정은위원장의 연설은 그 누구도 조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엄숙한 경고라고 하면서 로씨야 연방공산당 사할린주지부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열병식장을 누벼간 최첨단무기들은 그이의 선언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쿠바의 브렌짜 라피나통신과 만마TV방송들, 사우디 아라비아 신문 《알 샤르프 알 아우사드》는 열병식에서는 조신의 존엄과 안위를 담보하는 대륙간탄도로켓 중대와 핵전략무력중대들이 전군해나갔다. 행사가 전례를 깨고 0시부터 진행되었기 특이하게 주목된다고 하면서 분석가들은 열병식마감에 등장한 미사일을 사상 최대규모의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북조선은 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세계최대의 탄도미사일을 일종의 하나로 간주되는것을 공개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의 연설은 그 누구도 조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엄숙한 경고라고 하면서 로씨야 연방공산당 사할린주지부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열병식장을 누벼간 최첨단무기들은 그이의 선언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쿠바의 브렌짜 라피나통신과 만마TV방송들, 사우디 아라비아 신문 《알 샤르프 알 아우사드》는 열병식에서는 조신의 존엄과 안위를 담보하는 대륙간탄도로켓 중대와 핵전략무력중대들이 전군해나갔다. 행사가 전례를 깨고 0시부터 진행되었기 특이하게 주목된다고 하면서 분석가들은 열병식마감에 등장한 미사일을 사상 최대규모의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북조선은 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세계최대의 탄도미사일을 일종의 하나로 간주되는것을 공개하였다.

열병식에서 세계최대의 탄도미사일을 일종의 하나로 간주되는것을 공개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의 연설은 그 누구도 조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엄숙한 경고라고 하면서 로씨야 연방공산당 사할린주지부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열병식장을 누벼간 최첨단무기들은 그이의 선언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쿠바의 브렌짜 라피나통신과 만마TV방송들, 사우디 아라비아 신문 《알 샤르프 알 아우사드》는 열병식에서는 조신의 존엄과 안위를 담보하는 대륙간탄도로켓 중대와 핵전략무력중대들이 전군해나갔다. 행사가 전례를 깨고 0시부터 진행되었기 특이하게 주목된다고 하면서 분석가들은 열병식마감에 등장한 미사일을 사상 최대규모의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북조선은 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세계최대의 탄도미사일을 일종의 하나로 간주되는것을 공개하였다.

열병식에서 세계최대의 탄도미사일을 일종의 하나로 간주되는것을 공개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의 연설은 그 누구도 조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엄숙한 경고라고 하면서 로씨야 연방공산당 사할린주지부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열병식장을 누벼간 최첨단무기들은 그이의 선언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쿠바의 브렌짜 라피나통신과 만마TV방송들, 사우디 아라비아 신문 《알 샤르프 알 아우사드》는 열병식에서는 조신의 존엄과 안위를 담보하는 대륙간탄도로켓 중대와 핵전략무력중대들이 전군해나갔다. 행사가 전례를 깨고 0시부터 진행되었기 특이하게 주목된다고 하면서 분석가들은 열병식마감에 등장한 미사일을 사상 최대규모의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북조선은 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세계최대의 탄도미사일을 일종의 하나로 간주되는것을 공개하였다.

열병식에서 세계최대의 탄도미사일을 일종의 하나로 간주되는것을 공개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의 연설은 그 누구도 조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엄숙한 경고라고 하면서 로씨야 연방공산당 사할린주지부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열병식장을 누벼간 최첨단무기들은 그이의 선언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쿠바의 브렌짜 라피나통신과 만마TV방송들, 사우디 아라비아 신문 《알 샤르프 알 아우사드》는 열병식에서는 조신의 존엄과 안위를 담보하는 대륙간탄도로켓 중대와 핵전략무력중대들이 전군해나갔다. 행사가 전례를 깨고 0시부터 진행되었기 특이하게 주목된다고 하면서 분석가들은 열병식마감에 등장한 미사일을 사상 최대규모의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북조선은 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세계최대의 탄도미사일을 일종의 하나로 간주되는것을 공개하였다.

열병식에서 세계최대의 탄도미사일을 일종의 하나로 간주되는것을 공개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의 연설은 그 누구도 조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엄숙한 경고라고 하면서 로씨야 연방공산당 사할린주지부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열병식장을 누벼간 최첨단무기들은 그이의 선언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쿠바의 브렌짜 라피나통신과 만마TV방송들, 사우디 아라비아 신문 《알 샤르프 알 아우사드》는 열병식에서는 조신의 존엄과 안위를 담보하는 대륙간탄도로켓 중대와 핵전략무력중대들이 전군해나갔다. 행사가 전례를 깨고 0시부터 진행되었기 특이하게 주목된다고 하면서 분석가들은 열병식마감에 등장한 미사일을 사상 최대규모의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북조선은 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 세계최대의 탄도미사일을 일종의 하나로 간주되는것을 공개하였다.



공화국인민의 카랑스리은 투쟁전통

공화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80일전투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뜻깊게 경축할 양양된 열의와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를 자랑스럽게 계속하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의의있게 맞이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괴한 련속공격적으로 승리를 더 큰 승리로, 기적을 더 큰 기적으로 이어나가며 혁명의 새로운 도약기를 열어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투쟁방식이며 당대회를 맞이할 때마다 거창한 사회주의대전투를 벌여 위대한 전진의 역사를 안아오고 눈부신 기적을 창조해나가는것은 공화국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으로 되고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인민은 해방후 처음으로 된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고 당 제2차대회를, 전쟁의 재머리를 가지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시위한 증지드높이 당 제3차대회를, 천리마의 나래로 당 제4차대회를, 사회주의공업화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당 제5차대회를, 100일전투의 승전성과 함께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낸 자랑스런 선물을 안고 당 제6차대회를 맞이하였다.

지난 2016년에도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70일전투를 진행하였다. 당시 공화국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공업생산을 전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 장성시켰으며 수많은 기계제품들을 개발하는것과 같은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자랑한 결실은 온 나라가 자강력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도록 하고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전두에서 이끄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20여개의 단위를 찾고찾으시며 70일전투에서 보다 큰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올해는 공화국에 있어서 류례없이 어렵고 간고한 해라고 해야 할것이다. 정조부터 뜻하지 않은 악성전염병의 류입을 막기 위한 방역대진이 벌여어졌으며 승리는 자연해로 흡수한 피해를 입었다.

엄청난 도전과 장애로 하여 참으로 간고하고 힘겨웠지만 공화국의 인민들은 이 모든것을 이겨내고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이 기세로 공화국의 인민들은 80일전투에 진입

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인민의 명철로 성대히 경축한 그 열정, 그 기세로 다시한번 모두가 분발하여 떨쳐나선다면 극복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없는것이다.

80일전투를 친히 받기하시고 온 나라에 혁신과 전진의 불바람을 일으켜 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이 지구의 광산자들을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상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꾸밀 웅대한 구상을 피력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또다시 인민군대를 믿고 세기적인 방대한 투쟁과업을 결심하였다 하시면서 우리 당의 웅대한 포부와 리상이 온 나라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명기를 열어놓기 위한 80일전투의 불씨가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필승의 방략으로 국가가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대진군의 진두에서 서서 인민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을 믿고 공화국은 80일전투의 승리로 2020년도를 더욱 빛나게 장식하고 궁지와 희망속에 보다 밝은 미래를 펼쳐갈것이다.

김광익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신의 현실을 두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단재, 출판보도물들이 찬양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영국의 한 인사는 《이 세상 모두가 바라는 삶의 품이 바로 진정한 조국,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그러나 바란다고 하여 이런 행복의 요람이 누구나 다 안겨주지 못한다. 하다면 그러한 삶의 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류사에 가장 절충한 대성인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신은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에게 일주일이 철저히 구현된 인민의 락력으로 전변되었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어 조신을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 락력으로 더욱 훌륭히 가꾸어가신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민주공화국의 인터넷통신은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선거권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정사를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신의 현실을 두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단재, 출판보도물들이 찬양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영국의 한 인사는 《이 세상 모두가 바라는 삶의 품이 바로 진정한 조국,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그러나 바란다고 하여 이런 행복의 요람이 누구나 다 안겨주지 못한다. 하다면 그러한 삶의 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류사에 가장 절충한 대성인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신은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에게 일주일이 철저히 구현된 인민의 락력으로 전변되었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어 조신을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 락력으로 더욱 훌륭히 가꾸어가신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민주공화국의 인터넷통신은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선거권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정사를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신의 현실을 두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단재, 출판보도물들이 찬양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영국의 한 인사는 《이 세상 모두가 바라는 삶의 품이 바로 진정한 조국,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그러나 바란다고 하여 이런 행복의 요람이 누구나 다 안겨주지 못한다. 하다면 그러한 삶의 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류사에 가장 절충한 대성인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신은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에게 일주일이 철저히 구현된 인민의 락력으로 전변되었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어 조신을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 락력으로 더욱 훌륭히 가꾸어가신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민주공화국의 인터넷통신은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선거권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정사를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신의 현실을 두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단재, 출판보도물들이 찬양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영국의 한 인사는 《이 세상 모두가 바라는 삶의 품이 바로 진정한 조국,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그러나 바란다고 하여 이런 행복의 요람이 누구나 다 안겨주지 못한다. 하다면 그러한 삶의 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류사에 가장 절충한 대성인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신은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에게 일주일이 철저히 구현된 인민의 락력으로 전변되었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어 조신을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 락력으로 더욱 훌륭히 가꾸어가신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민주공화국의 인터넷통신은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선거권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정사를

시평

조선전쟁의 역사적진실은 감출수 없다

요즘 남조선에서 《조선전쟁은 남의 복침이 아니라 북의 남침》, 그 누구의 사주를 받아 《남침》한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들이 튀어나와 내외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그야말로 력사의 진실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망동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이 미국과 리승만도배들이 도발한 침략전쟁이라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고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력사의 진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학자 부르스 커밍스가 쓴 《코리아전쟁의 기원》을 비롯하여 《코리아전쟁의 숨겨진 력사》, 《아메리카현대사》, 《1950년대의 인식》, 《음직이있는것은 무엇이든 썩라》 등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남침》나발을 떠드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서 명백히 력사에 대한 무지무도한 외곡이고 공화국에 대한 파렴치한 도발이 아닐수 없다. 애초에 미국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공정성과 정의를 제버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북침을 《남침》으로 오도하여 채택한 부당한 결의를 내들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변하고있는것도 열도당도않은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다 아는것처럼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하기에 앞서 공화국을 《침략자》로 몰아낸 《결의안》을 만들고 유엔에 제출할 준비를 미리 해놓았다. 이것은 1951년 6월당시 미국무성 유엔담당차관보가 조선전쟁과 관련하여 미국무성은 《유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남침》나발을 떠드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서 명백히 력사에 대한 무지무도한 외곡이고 공화국에 대한 파렴치한 도발이 아닐수 없다. 애초에 미국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공정성과 정의를 제버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북침을 《남침》으로 오도하여 채택한 부당한 결의를 내들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변하고있는것도 열도당도않은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다 아는것처럼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하기에 앞서 공화국을 《침략자》로 몰아낸 《결의안》을 만들고 유엔에 제출할 준비를 미리 해놓았다. 이것은 1951년 6월당시 미국무성 유엔담당차관보가 조선전쟁과 관련하여 미국무성은 《유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남침》나발을 떠드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서 명백히 력사에 대한 무지무도한 외곡이고 공화국에 대한 파렴치한 도발이 아닐수 없다. 애초에 미국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공정성과 정의를 제버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북침을 《남침》으로 오도하여 채택한 부당한 결의를 내들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변하고있는것도 열도당도않은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다 아는것처럼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하기에 앞서 공화국을 《침략자》로 몰아낸 《결의안》을 만들고 유엔에 제출할 준비를 미리 해놓았다. 이것은 1951년 6월당시 미국무성 유엔담당차관보가 조선전쟁과 관련하여 미국무성은 《유엔이

김광익

박철남